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태권도 수련을 통한 초등학생의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용진삼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태권도 수련을 통한 초등학생의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지 삼 업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용 진 삼

용진삼의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12월 16일



주 심 체육학석사 이 태 응



위 원 철학박사 문 선 호



위 원 이학박사 지 삼 업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가설	4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태권도	6
가. 태권도의 정의	6
나. 태권도 수련의 목적과 효과	8
다. 태권도의 가치	10
2. 인성발달	15
가. 인성의 정의	15
나. 인성의 하위요인	17
다. 태권도수련과 인성발달	25
III. 연구 방법	28
1. 연구 대상	28
2. 측정도구	30
가. 설문지 구성	30

나. 구성 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31
3. 자료수집 및 절차	32
4. 자료 분석	32
IV. 연구 결과	33
1. 인성발달에 대한 기초 통계량	33
가. 성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35
나. 연령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38
다. 수련시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41
라.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44
마. 수련수준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48
V. 논의	52
VI. 결론 및 제언	57
1. 결론	57
2. 제언	60
참고문헌	61
Abstract	66
설문지	69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29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	30
<표 3>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31
<표 4> 인성발달에 대한 기초통계량	34
<표 5> 성별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36
<표 6> 성별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36
<표 7> 성별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37
<표 8> 성별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37
<표 9> 성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37
<표 10> 연령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39
<표 11> 연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39
<표 12> 연령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40
<표 13> 연령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40
<표 14> 연령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40
<표 15> 수련시간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42
<표 16> 수련시간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43
<표 17> 수련시간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43
<표 18> 수련시간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43
<표 19> 수련시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44
<표 20> 수련기간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46
<표 21>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46
<표 22> 수련기간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46
<표 23> 수련기간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47

<표 24> 수련기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47
<표 25> 수련수준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50
<표 26> 수련수준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50
<표 27> 수련수준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50
<표 28> 수련수준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51
<표 29> 수련수준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5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간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지만 급격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경험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및 이에 대한 반작용은 국민정신과 도덕성을 무너지게 하고 있으며, 사회윤리의 부재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편법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 등과 같은 사회풍조는 성인사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우려되고 있다(이한주, 2005).

청소년들의 범죄 행동은 저연령화, 집단 비행 증가, 약물 관련 비행 증가, 동기가 없는 비행 증가,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청소년의 비행 증가 현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 논해지고 있다(박춘자, 1989). 또 과거 절도, 폭행에 머물렀던 청소년 범죄는 최근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면서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년원이나 교도소 수감을 통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공범을 만나는 장으로 이용되면서 재범률이 증가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재고찰을 요구함에 따라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실천과제의 하나로서 인성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 중의 하나로 유아기부터 적극적으로 인성교

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오늘날 초등학생들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과도한 지적 성취욕구로 인해 공부하라는 소리에 찌들려 압도당하고 있으며 성장기에 속해 있는 아동의 속성과는 너무도 극단적인 반대 현상이다(김철, 1998).

썩썩하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겨 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아동을 만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인 발달이 대부분 결정되는 시기이며 또한 이 때 형성된 가치관과 정서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초등학교 시기의 활동은 청년기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아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김성록, 2006).

이렇듯 초등학교 시기에 중요한 요소인 정서는 균형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초등학교 학생의 정서에 스포츠 활동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한경,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태권도는 다른 많은 스포츠나 체육운동과는 달리 무도정신과 스포츠 정신이 함께 결정된 무도 스포츠로써 수련을 통하여 심신단련을 꾀하고 강인한 체력과 굳은 의지로 정확한 판단력과 자신감을 길러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유하며, 예절바른 태권도로 자신의 덕을 닦는 등 신체적, 정신적 균형 발달을 추구하고 있다(이대영, 2003).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으로 억눌려 왔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인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강래형, 2006).

그래서 생활 태도와 인성은 교과서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신체의 발육과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권도 수련

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수련에서 태권도 기술의 획득은 그 자체가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에만 그친다면 태권도 지도가 되고 만다. 태권도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격도야에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희충(1995), 이영선(2007), 김상규(2005), 김영곤(2005), 송종국(2005), 장승수(2008), 진중의(1998), 이한주(2005), 강래형(2006), 김낙현(2005), 김진해(2007)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지역이나 아동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예를 들면 진중의(1998), 장승수(2008), 의 연구에서는 수련생의 성별에 따른 인성 발달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규형, 송형석(2002) 등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비슷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역이나 아동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과 본 연구자와 선행연구자들의 지역이 틀리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태권도를 지도하는 태권도장의 아이들과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수련생들의 인성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자료 화 함으로써 선행 연구자들과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일선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초등학교 수련생 지도육성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인성발달을 극대화 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주기적인 수련을 통하여 인성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더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해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와 우수성을 입증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의 가설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수련정도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 태권도 수련이 성별에 따라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나. 태권도 수련이 학년에 따라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다. 태권도 수련이 연령에 따라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라. 태권도 수련이 기간에 따라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마. 태권도 수련이 시간에 따라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바. 태권도 수련이 수준에 따라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과 인성발달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한점을 두었다.

- 가. 이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태권도장에서 수련하고 있는 초등학생 2, 3, 4, 5, 6학년으로 제한하였다.
- 나. 조사대상은 6개월 이상 태권도를 수련한 초등학생으로 하였다.
- 다. 조사대상 지역을 부산지역으로 제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 라. 대상자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을 검증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변인에 의해 인성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태권도

가. 태권도의 정의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는 인체의 모든 에너지를 총 집중하는 전신운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맨손 운동이라는 장점이 있다(김상규, 2005).

태권도는 한자어로 ‘跆拳道’로 표기된다. 이 경우 ‘태(跆拳道)’는 ‘발로 뛰고 차고 밟는다.’는 뜻이며, 권(拳)은 ‘주먹’을 의미하며, ‘도(道)’는 ‘길 또는 정신수양’을 의미한다. 태권도(TAE KWON DO)의 로마자 합성어를 풀이하면, 태권도의 첫 번째 단어 중 “T”는 끈기 혹은 테크닉 (Technique), “A” 행동 (Action), “E”는 기품(Elegance)을 의미한다. 이는 무예를 수련하는데 있어서 끈기와 테크닉의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어떤 상황을 관리하는 필요한 ‘생각하다’의 의미로도 강조되어 있다. 한 행동(Action)은 태권도 수련자들이 깊이 생각한 뒤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 영역에 해당한다. 태권도는 분별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우아하게 행해져야 한다. 두 번째 단어 중 “K”는 코리아 (Korea), “W”는 의지(Will), ‘O’는 질서(order), 마지막을 ‘N’은 자연스러움 (Natural)이다. 태권도 수련인 들은 무예능력을 증진시키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며 훈련은 고통스럽고 항상 엄격해야 한다. 이 훈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태권도는 전통에 의지하고 있는 하나

의 조직적인 무예로서 태권도의 역사, 철학, 테크닉이 지도자로부터 수련자에게로 전수된다. 수련자는 마땅히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 복종이 곧 질서이며 태권도의 동작은 일부러 꾸민 것 같이 부자연스러워서는 안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세 번째 단어 'D'는 방어(Defence), 'O'는 일치(Oneness)이다. 태권도는 기술단련을 통해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며 주의 환경과의 일치를 추구한다(김경지, 1998).

태권도는 품새, 겨루기, 격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품새란 '한' 철학의 원리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연결해 가상의 적을 상대로 스스로 겨루기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동작이다. '겨루기'는 품새 학습 체계에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한 두 선수간의 실전이다. '격파'는 수련으로 익힌 손발의 기술체계를 송판이나 기와, 벽돌 등 단단한 물체를 통해서 실제로 태권도 수련의 위력을 시험해보는 총체적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진해, 2007). 그러므로 태권도는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체육활동과 다른 차이를 가지는데 이는 상대에 대한 예의,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은 물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통한 자아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즉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무술인 동시에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무술이라고 볼 수 있다. 태권도가 갖는 교육적 가치는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수양을 쌓는 무도 즉,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드는 체육적 활동이며(이봉, 1992), 태권도 정신에 나타난 예의, 인내, 염치, 극기, 용기 등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송승복, 2008).

그래서 태권도를 올바르게 수련을 하면 신체의 단련과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길러주며 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내, 자기 스스로의 인격완성을 이루게 된다.

나. 태권도 수련의 목적과 효과

1) 태권도 수련의 목적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강하게 단련된 수족(手足)과 우수한 공방기술로써 판자나 기와를 격파하며 상대를 일격 일축함으로써 살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연마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동시에 정신까지 아울러 수양하여 덕(德)을 배양하는 것이다. 덕은 도(道)가 반복되어 몸에 쌓인 것을 의미하고 덕은 곧 득(得)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태권도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완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체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내적, 지적 수행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자기교육에 있다(김철, 1986).

태권도를 통해서 개인이 더욱 나은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수련을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능성이란 태권도가 그 자체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한 형태 또는 상이다. 즉 이상적인 인간상인 것이다. 기술을 통해서건 혹은 과정을 통해서건 개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태권도의 교육적 이념이요,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정신의 요체다. 인성교육과 심신단련, 자신감 형성등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태권도 수련활동은 행동발달과 성격기능의 개발이 촉진되므로, 유아기부터 인간의 개발에 필요 불가결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이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장으로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장승수, 2008).

2) 태권도수련의 효과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수련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이천인(1998)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신체적 측면으로서 태권도를 하게 되면 정신의 미적인 움직임과 풍부한 기술능력을 갖춘 동작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신체 발육을 도모할 수 있다. 태권도는 인간의 호신 능력을 기르며 자기 방어를 기르며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따라서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미적인 움직임으로 마음이 정화되고 인간의 생활을 돕게 되며, 신체의 움직임의 기본이 되는 걷기, 달리기, 뛰기, 굽히기 등의 운동을 하게 되어 리듬감, 긴장감, 균형 등의 체력 요소가 육성된다.

둘째, 심리적 측면으로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 관계에서 불균형 상태를 가질 때에 일어난다고 한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욕구나 충동이 동일시되고 환경적인 요소가 유인될 때 상호 작용을 일으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태권도는 주먹을 지르고 발로차고 손으로 찌르는 등의 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태권도에서도 도(道)적 행동의 규칙 안에서 스승의 가르침과 심신수련 및 인내, 끈기 등으로 정화시켜 인간내부의 욕구를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셋째, 사회적 측면으로서 인간은 개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사회에서의 행동은 개인이 아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관계 및 대립과 타협 등의 체험을 통해 행동을 발전시키고 관계를 원활히 하며 태권도를 통해 사회에서 필요시 되는 질서와 규칙 예의, 극기, 자재, 포용, 시간엄수 등의 태도를 배움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넷째, 도덕적 측면으로서 무의 발생은 타인과의 투쟁이나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투쟁하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철학적 사고가 가중되어 무도로 정착하였다. 무도란 수련을 통하여 어느 위치에 올랐을 때 정신과 기술의 방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모두와 더불어 하나의 존재 하에 조화를 이루었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무도라 한다. 이런 사람을 무도인이라 일컫는데 무도인은 심신일여, 즉 동과 정이 중용을 이루며, 승부나 경쟁에 초탈하고, 자기 발전과 자아 발전을 위한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데 그 뜻이 있다.

태권도는 바로 예의정신을 필두로 심신수련, 정신수양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경쟁적 스포츠와는 달리 서로간의 기본적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고상한 언행과 바른 몸가짐을 갖게 된다(이성용, 2008).

다. 태권도의 가치

태권도는 신체의 발육을 조장한다. 신체의 발육은 인체의 순환, 호흡, 소화, 배설, 내분비 등 생리적 계통에 속하는 여러 기관들의 협응(協應)작용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런데 태권도는 이러한 생리적 기능을 자극하여 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신체의 발육을 향상시킨다.

또한 태권도는 신체의 발달(근력, 지구력, 유연성, 균형성 등)을 조장한다.

태권도 품새는 팔을 뻗고 다리를 펴고 몸을 틀고 하는 일련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움직임 속에서 근력, 지구력, 유연성, 균형성을 성장시킨다.

이러한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과 운동기능을 향상되게 해준다.

유아의 경우에는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 운동 능력도 꾸준히 발달하며,

생후 5세까지는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이는 걷고, 달리고, 뛰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 시기에는 기본 운동기능이 발달하는 시기로 신체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크고 작은 근육의 발달을 조장하고 신체의 각 부분을 단련시켜 운동기능과 정상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 유아기는 운동기능이 분화되고 섬세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운동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유아기에는 신체 움직임의 기초기능을 습득하는 신경기능의 발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하여 대뇌의 기능 중에 평형성, 속도, 정확성 등은 미흡한 점이 다소 있다.

유아들은 신체의 양적 성장률은 이전에 비하여 완만해지나 운동능력의 발달은 현저하게 증가되며,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즐기게 되면서 운동 능력도 발달된다.

또한 김석련(1993)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1년 동안의 태권도 수련이 비수련자에 비하여 19.5%의 신체 성장발육 상태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태권도 3품 이상 수련자들은 비수련자에 비해 100m, 턱걸이,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멀리 던지기의 6가지 모든 종목에서 기초체력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석련, 1997).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비만이 많은 질병의 근원이 되며 과체중인 사람들이 서양 전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관련하여 질병으로 규정된 것이다. 비만의 근원이 되는 요소에는 고칼로리의 음식섭취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섭취된 칼로리의 소비를 위한 운동량의 부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운동을 하기 위한 적합한 운동으로서 태권도가 적합하다고 감히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흥미를 자아내면서도 무리하지 않은 태권도 수련을 꾸준히 지속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년층의 경우, 신체는 노후화 되어가며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면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부족은 관절의 가동범위를 다소 제한하고 힘든 일을 외면하게 만들어 더욱 몸을 가동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쉽다. 정상철, 김원중, 이명철, 조장원(1989)은 태권도의 수련이 신체 각 부위의 골밀도를 증가시켜 노년기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아와 장년층에게도 신체활동을 원활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태권도를 권장하여 유아의 원활한 성장과 장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는 신체의 발육발달,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과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격, 예의, 인내, 의지,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시키고 길러준다. 즉, 첫째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표시되는 높고 값진 인격의 기본으로서 서로 공경하고 의리를 지키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함으로 예의를 배양한다. 둘째, 부끄러움을 아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염치를 배양한다. 셋째,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스스로 이겨내어 인내를 배양한다. 넷째, 자기 자신을 조절하여 모든 욕심을 자기의 의지로서 눌러 이겨서 굳건한 의지를 기른다. 다섯째, 백 번 찍어도 바른 것을 위해 굽히지 않는 군자의 기상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기른다.

김석련(1992)은 음악을 이용한 느린 동작의 태권도 수련이 수련 전보다 약 18%의 집중력이 향상 된다고 한다. 이는 태권도 수련이 신체만의 수련이 아닌 정신적 수양을 배양할 수 있다는 주요한 논거가 된다.

이러한 정신적 수양의 배양은 학업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을 수 있는데 4년 이상 태권도를 수련한 3품 증을 소지한 어린이들이 비 수련자에 비하여 IQ가 약 1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또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13과목으로 환산할 때 총점 78 점을 더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급 석차 10등 이상 앞당길 수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다. 즉 어린이 태권도 수련이 곧 정신적 수양이며 또한 실생활에서 발현될 수 있는 IQ와 학업성적 등에서 훌륭한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석련, 1990).

이러한 올바른 수련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줄 아는 지혜가 축적되며 행동을 유발하는 기본적 에너지인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국민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이룰 수 있다.

태권도 수련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가치를 함께 배양하고 계발할 때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태권도 수련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인 수양은 사회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할 수 있다.

앞서 말한바 있지만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돼 운동부족과 맞물려 비만증에 무기력증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원시사회에서 고대·근세·근대·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거동과 활동을 수반하여 살아온 우리 인류가 최근 들어 산업화·기계화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태권도 수련은 온몸의 근육을 모두 수축·이완시켜 움직이는 운동인데다 혼자서도 아무 곳에서나 품새를 통하여 만족할만한 직접적인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뛰어난 스포츠이며, 태권도로 인해 땀으로 다량의 노폐물 배출과 체력뿐만 아니라 여러 유익한 기술습득으로 누구에게나 자신감을 지니고 대면할 수 있게 되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매우 바람직한 무도이자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태권도는 현재 팬암게임, 아시안게임, 올아프리카게임, 남아메리카게임 등의 대륙별 종합경기 대회는 물론 올림픽 경기장의 관중들이 환호하는 여러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의 개회식에서처럼 1,000명이 넘는 많은 수련자가 아름답고, 정확하고, 강력한 힘이 표출되는 태권도 매스게임 장면은 어떤 스포츠종목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맨몸 투기로서 인명에 미칠 피해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과학적인 경기규칙과 보호용구의 개발은 태권도가 각광받는 국제스포츠로 발전한 원동력이다.

이제는 사회전반에 있어서 태권도 수련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의 개념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세계적 스포츠이자 무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고도의 산업문명사회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에게 적합한 현대스포츠로서 유희성, 안전성, 규칙성, 경제성을 끌고루 갖추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서 혼자서 살 수 없으며 사회질서와 규범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태권도를 수련함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과 예의와 복종, 관용, 극기 등의 태도를 배우게 되며, 수련과정에서 비롯되는 심신의 수양 내지는 인내심 또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로부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등 신체활동에서의 체력단련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줌으로써 사회생활에서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때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며 한정된 수련생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층을 포섭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http://www.teakwonmaru.com./2510895>, 2010).

2. 인성 발달

가. 인성의 정의

1) 인성 교육의 개념

인성(personality)은 흔히 성품·기질·개성·인격·성격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로 일컫는다. 교육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심리학에서는 성격이란 말을 쓴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인성이란 전통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윤리적 성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성이 갖추어진 인간이란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규범을 잘 지키는 등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에 사랑을 베푸는 모범적인 인물을 지칭하여 말한다. 인성의 정의는 아마도 인성 이론자의 숫자만큼이나 많이 있을 것이다. 40여 년 전 벌써 올포트(Allport)는 1967년에 인성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50여 가지의 각기 다른 정의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인성에 관한 정의는 인성 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개념에 의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인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중요한 인성 이론을 모두 살펴본 뒤에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인성의 뜻이 무엇인지 학자들은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성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하여 제각기 나름으로 반응하는 일괄적인 행동의 구조와 역동적 특성’을 말한다.

(Pervin, 1970)은 그의 저서에서 “인성이란 여러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독특하게 반응하는 구조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 정의를 기

초로 하여 인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정의 하였다.

첫째, 인성은 구조적인 측면과 역동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인성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또한 그 여러 부분이 서로 어떤 관련을 지니고 있는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인성의 구조나 역동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인성은 궁극적으로 행동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행동은 결국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하고 검증할 수 없는 인성의 개념이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인성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성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특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성에는 일관성, 항상성, 규칙성 등이 있다.

넷째, 사람은 전공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이란 상황과의 관련에 따라서 독특한 양상을 지니게 된다. 인성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개인이 반응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환경적 특징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인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 교육, 도덕 교육, 가치관 교육, 기본 생활 교육 같은 말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말들은 많은 점에서 인간성의 함양이라는 점에서 그 속성이 같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성 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른 말들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념적 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단지 인간 교육은 덕성과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임에 비해 인성 교육은 덕성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어 인성 교육이 덕성 위주의 교육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교육 역시 지와 덕과 체가 겸비된 조화로운 인간 양성이라는 점에서 인성 교육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인성의 하위요인

1) 정서적 안정성

정서란 단어의 어원적 근원을 보면, 원래 라틴어인 Emonere(감동시키다. 뒤흔든다. 흥분시키다)에서 나온 말로써 ‘e’는(밖으로)란 뜻이며, ‘movere’는(움직이다.)란 뜻이다 따라서 정서는 ‘밖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을 두며 개체의 격동상태를 의미한다. 또 이렇게 움직이는 반응을 하는 유기체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서가 갖는 강한 주관적 경험 가운데 하나는 행동 충동으로서 환경과의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감정, 정서, 감동이라는 일련의 어휘들은 감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감정(feeling)이란 용어는 정적 경험의 총칭으로 쓰이는 일이 많다(이정덕, 1980).

정서에는 4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 유기체 내부의 생리적 동요로서 이것은 정서 표출의 호흡, 맥박, 내분비, 안면표정 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자극대상이 물체뿐만 아니라 기호, 언어, 문장, 사회조건, 관념, 기억 등이 포함되며, 셋째, 자극으로서 자극의 대상이 유기체 내부에 유발하는 감정 체험이다. 넷째, 정서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이에겐 공격적 파괴행동, 분노와 같은 행동, 연애, 기쁨과 같은 정서 표출의 접근행동, 공포의 정서에 나타나는 도피반응, 우울 및 비탄의 정서 표출에 나타나는 반응의 정지 등이 있다(동지한, 2007).

정서(emotion)는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접근 하느

나 또는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접근해 가도록 동기를 형성시키느냐, 아니면 회피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넓게 집단화해 볼 수 있다(장동환, 김영채, 손정락, 1991).

정서는 목적지향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감정, 즉, 기본적 정서의 분노,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물과 인간은 여러 가지 적응하는 행동을 동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범주의 정서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두려움(fear), 놀람(surprise), 비애(sadness), 혐오(disgust), 분노(anger), 예기(anticipation), 기쁨(joy) 그리고 수용(acceptance) 등은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개인적 강도와 빈도에 의하여 행동의 방향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볼 때 동기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심리적 구조라 할 수 있다(한동순, 2008).

Oakley와 Jenkins(1996)는 정서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째, 정서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 즉 목표와 관계있는 사건들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유발된다. 관심이 해결되면 긍정적인 정서가 경험되고, 방해받으면 부정적인 정서가 경험된다. 둘째, 정서의 핵심은 활동하고자 하는 행동의 준비성과 계획의 실행과 촉진이다. 정서는 위급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먼저 하도록 하기도 하고 진행 중인 다른 정신 과정이나 행동과 경쟁하게 하거나 방해하기도 한다. 셋째, 정서는 신체적 변화 표현현상, 행위를 수반하는 전형적인 정신적 상태(state)로 체험된다는 것이다. 즉, 정서의 핵심은 행위준비도라고 간주하며, 행위준비도는 개인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실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에서도 한결같이 나타난다(홍준희, 2001).

현재 정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정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가운데서도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정서가 갖는 강한 주관적 경험 가운데 하나는 행위 충동으로서 환경과의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분야별 심리학자들은 정서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한동순, 2008).

2)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근래에 생겨난 용어로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격과 종합적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심성교육”이란 뜻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97).

인성교육이란 인성의 구성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요소가 교육에 의해 조화롭게 발달시켜 인간다운 품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으나 ‘인간답다’라는 말의 의미가 애매모호의 모호성을 지니는 만큼 그 의미의 심층적 파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개념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고, 주요 전통교육에서 추구해 온 바람직한 교육의 결론이자 결실인 인간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교 교육의 교육적 전통에 비추어 보면 도덕적 인격의 완성, 서양의 인간주의적 교육에서 추구해온 자아실현인, 자유교육의 산물로서 개념 정의 및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보편적인 교양을 갖춘 인간의 모습 등이라 정의 할 수 있다(조난심, 1997).

교육부는 1995. 5. 31 교육 개혁안 발표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달했다.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호중, 2001).

인성교육의 다양한 정의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인성교육은 사람됨의 교육, 품성, 인격도야, 도덕성의 고양, 가치관의 확립, 덕성의 함양 등의 의미를 골고루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상적인 언어사용을 고려해 볼 때, 인성교육은 전인교육, 인간교육의 용어에 내포되는 개념이고, 품성교육, 도덕교육, 가치교육, 덕성교육 등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손성남, 1996).

인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경쟁적이고 편협한 인간이 아니라 덕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교양과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요구 되고 있다(이경식, 2009).

선행연구를 보면 체육교사들은 스포츠를 포함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도덕적, 사회적 인성의 덕목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덕적 인성보다는 사회적 인성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박중길, 김승재, 문창일, 문익수, 2004).

3) 배려성

‘배려(care)’ 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가족, 친구, 연인, 이웃, 동료, 자기 자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할 때 사용되는 배려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보다 우선시하고, 타인의 어려움이나 필요에 응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려는 의료인이나 사회사업가, 교사 등의 전문적인 직업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페미니스트들은 배려를 타인에 대한 도덕적 감정이나 태도 또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윤리학의 토대로 삼기도 한다(박병춘, 2002).

배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감정 혹은 동정에서 생겨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같은 특징적 기질을 포함한다. 또한 관심과 주의, 타인에 대한 느낌, 타인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갖는 것, 가족이나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이익을 지향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배려가 보편적이고 공정한 원리와 의무감과 대조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란 불편부당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우위에 두는 감정은 아니다. 배려가 인간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상당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과연 부담이라는 것이 배려의 성격이라면 배려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면 이 부담은 ‘최고의 심리상태’라고 여겨진다. 이것은 책임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배려라는 것은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이희정, 2006).

(Milton Mayeroff)은 배려를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전형적인 예로서 아버지의 자식, 교사의 학생, 의사의 환자,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려를 들고 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에서 벗어나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이어오프는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도 보았다(Mayeroff, 1971).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이 모두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며, 배려 자는 배려 행위를 수행하고 배려 받는 사람은 그 배려에 대해 인식하고 배려 행위에 대해 수긍할 때 완성된다. 더욱이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한 핵심 요

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등의 도덕적 동기를 가지며 상대방을 보살피는데 적절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권미정, 2008).

4) 예절성

예절은 지키고 행해야 할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도리이고 질서이며 약속이다. 어느 시대, 어떠한 형식의 예이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행위 규칙이며 사회규범이다. 따라서 예는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기본이며 인간다운 인간의 품격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모, 선배로부터 배워 부모로서 다시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자녀는 다시 후손에게 가르치는 행위 양식이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바, 높은 산이나 깊은 물에 막혀 수월하게 무리를 지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며 사는 일정한 지역을 생활문화권이라 하고,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 모두 그렇게 행하는 생활방법이 예절이다(김득중, 1997).

예절의 요소로는 예절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먼저 예절의 인지적인 측면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일의 순서나 절차가 있듯이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인지해야 할 내용을 뜻한다. 예를 들면, 어른에게는 “밥 먹으세요”가 아니라 “진지 잠수세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경어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사말과 높임말을 알고 상대와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예절의 형식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예의를 갖추려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속된 공동체의 규정이나 말투, 몸가짐과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표현양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예절의 가치적인 개념이 있다. 가치적인 개념은 예절의 인지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갖추기 전에 가장 내면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예절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양식은 겉치레일 뿐이다(김정원, 2008).

성균관 예절 총서(1996)에서는 예절이건 규칙이건 혹은 법률이건 간에 인간존중이라는 근본정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단지 예절은 무엇보다도 더욱 인격의 자율성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정신이 바탕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절을 그냥 귀찮은 것이나, 형식적인 것이니 하면서 쉽게 넘겨 버리는 수가 많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예절을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절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며, 그 이유는 인간이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자기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만 홀로 인격을 존중 받을 수는 없다. 내가 대접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다해 상대방을 대접해 주어야 한다. 예절을 지킴으로서 내가 남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더불어 내 인격도 존중 받을 수 있게 된다(손하중, 1998).

5) 기본 생활습관

기본생활습관이란 한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

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대구광역시 교육청, 1991).

따라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란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 사회적 규범과 원리에 따라 적응하며 행동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성장하는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관리하는 안목과 능력을 갖도록 돕는 일이다(박찬옥, 1994).

또한 정재순(1997)은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란 전통적 윤리와 함께 정신 및 태도, 기술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시대규범과 도덕 정신이 내면화 되어 행동이 변화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 하였고, 현해정(1994)은 기본 생활습관을 개인생활과 공동생활로 분류하였으며 생리적 생활에 필요한 식사, 수면, 배설, 옷 입고 벗기 등을 비롯하여 공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예절, 질서, 절제, 청결, 환경보호로 나누었다. 이는 습관이 행동적, 구체적, 기능적이거나 정신 등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그 행동의 이유를 스스로 인지하여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문화가 기본 생활 속에 있으며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계승 또는 변화시켜야 하는 가치와 규범이 그 속에 관련되어 있다(송세정, 1999).

다. 태권도수련과 인성발달

태권도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폭력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은 행위양식이 될 수 있다. 즉 태권도는 각 개인이 몸을 단련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자신감, 극기와 절제 등과 같은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폭력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부정적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역기능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를 도덕성이나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송형식, 2001).

또한 정찬모(1976)는 “태권도는 심신수련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기술 단련을 통하여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이 되므로 충분한 사전 교육이 되어야한다. 즉 태권도는 운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태권도 수련생들의 개성과 인품은 물론 능력, 습관,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거시적인 의미로서, 태권도 수련생의 인내심, 집중력, 침착성, 자신감, 자아존중감, 리더십, 그리고 예의범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박형식, 2005).

그러므로 태권도 수련교육 이론 등을 바탕으로 실제 수련현장에서는 어떠한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시행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은 도장 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단체 문화센터,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특기적성 교육으로 주로 행해진다. 태권도가 보편화되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장에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태권도가 지닌 고유의 정신수양을 아동에게 습득시켜 무도로써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교육효과로써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강화 자존감 등을 바로 세우는 결실을 거두고 나아가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교육과의 접목 연구 시행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태권도의 정신교육은 전통적으로 수련자 준수사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련자 준수사항은 수련자로서 의당 지켜야할 덕목으로 사회의 각 도장 등 모든 태권도 수련장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구체 항목으로는 효, 예절 또는 예의규범, 신의, 개인 위생관리, 태권도 정신 및 스포츠맨십 실천, 수련장 질서유지, 사범 지시 복종, 수련장소 및 용구관리 등을 들 수 있다(이대영, 2003).

태권도 정신 및 스포츠맨십은 태권도 즉 무도 스포츠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의 세부항목으로서 인내, 신의, 백절불굴의 감투정신, 극기염치, 타인비난 및 교만삼가 등이다. 예절은 타인에 대한 바른 심성의 외적표현으로서 태권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수련장에서는 사범, 선후배, 동료 간의 예절을 갖추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학부모, 선생님, 웃어른에 대한 예절로 전이 시키도록 지도한다. 예절은 인사 말씨 및 기타 행동으로서 실행된다. 수련장 내의 질서유지는 특히 어린이에게 질서 및 기강확립의 의미로 시행된다. 사범 지시 복종은 맹종과 다른 의미에서 수련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지시에 대한 복종은 수련자의 안전과 정서면에도 관련한다. 이 같은 수련자 준수 사항은 태권도 수련 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정신교육에 큰 효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처벌은 수련생 중의 규칙위반에 대한 시정수단으로서 그 정신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각, 무단결석, 거짓말, 욕설, 난폭한 장난, 싸움, 타인의 권리침해, 등 수련자로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된다(박상민, 1999).

또한 태권도에서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중요시되며 폭력적 감정이나 충동을 절제하고 모범적 행위를 중시한다.

대한태권도협회(1981)에서는 오래전부터 태권도인의 예의규범을 공포함으

로써 태권도수련자는 예의를 지키고 인격을 도야하도록 널리 계몽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태권도와 같은 동양무도는 자기 수양을 통해 사람 됨됨이를 닦는 인성교육의 주요한 소재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개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이규형, 2002).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2학년~6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 하였으며, 현재 태권도 수련을 6개월 이상 참가하고 있는 40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여,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라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표본 5부를 제외하고 총 395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1>는 태권도 수련생에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총 응답자는 395명으로 남자가 320명(81.0%)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연령은 11살이 152명(38.5%)로 가장 많았으며, 12살이 133명(33.7%), 13살이 104명(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나이와 동일하게 4학년이 151명(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5학년이 133명(33.7%), 6학년이 105명(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련시간에서는 1시간이상~1시간 30분미만이 324명(82.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참여횟수는 5회 이상이 356명(90.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수련기간은 2년~3년 미만이 98명(24.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이 93명(23.5%)로 나타났다. 수련수준은 2품이 201명(50.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품이 121명(30.6%)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20	81.0
	여자	75	19.0
연령	9살	2	0.5
	10살	4	1.0
	11살	152	38.5
	12살	133	33.7
	13살	104	26.3
학년	2학년	1	0.3
	3학년	5	1.3
	4학년	151	38.2
	5학년	133	33.7
	6학년	105	26.6
수련시간	1시간미만	42	10.6
	1시간이상~1시간30분미만	324	82.0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	29	7.3
참여횟수	1회 이하	7	1.8
	2회	4	1.0
	3회	14	3.5
	4회	14	3.5
	5회 이상	356	90.1
수련기간	1년 미만	7	1.8
	1년~2년 미만	93	23.5
	2년~3년 미만	98	24.8
	3년~4년 미만	93	23.5
	4년~5년 미만	44	11.1
	5년~6년 미만	37	9.4
	6년~7년 미만	17	4.3
	7년~8년 미만	3	0.8
	8년 이상	3	0.8
수련수준	1~2등급	3	0.8
	3~4등급	5	1.3
	7~8등급	2	0.5
	1품	121	30.6
	2품	201	50.9
	3품	62	15.7
	4품	1	0.3
	전체	395	100.0

2. 측정도구

가. 설문지 구성

이 연구는 태권도 수련을 통한 초등학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 기입식으로 하였고, 초등학교 수련생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성발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의 인지적 경험으로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뢰성과 타당도를 고려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김영곤(2005), 이철(2005), 김귀전(2004), 심미향(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승수의 연구논문의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성별, 연령, 학년, 수련시간, 참여횟수, 수련기간, 수련수준)과 인성발달을 알아보는 문항(정서적 안정, 인성교육, 배려성, 예절성, 기본생활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 지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

구성 지표	문항 수	
일반적 특성	7	
인성발달	정서적 안정	5
	인성교육	5
	배려성	4
	예절성	4
	기본생활습관	5

나. 구성 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 요인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은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6이상이므로 나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누적분산	신뢰도 계수값	
정서안정	다른 사람 이해	0.775	3.498	15.208	0.865
	어려운 일 처리	0.751			
	긍정적 생각	0.736			
	주어진 일에 집중	0.680			
	안전하게 행동	0.677			
인성교육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0.726	3.194	29.094	0.868
	바르게 살도록 노력	0.708			
	자신에 대한 가치관	0.680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0.664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0.639			
배려성	식사습관	0.803	3.085	42.507	0.818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0.788			
	준비성에 도움	0.709			
	규칙적인 생활	0.666			
예절성	바른 행동	0.634	2.906	55.143	0.809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0.752			
	예의 바른 행동	0.731			
	바른 말씨 사용	0.609			
기본생활 습관	몸가짐을 바르게	0.596	2.430	65.709	0.844
	물건 정리정돈	0.837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0.638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0.632			
	누구에게나 친절	0.600			

3. 자료수집 및 절차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부산지역에 있는 태권도장을 선정한 후, 방문 직접 설문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 다음은 연구자가 직접 태권도장을 방문하여 수련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여,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라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표본 5부를 제외하고 총 395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응답 시 유의 할 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내용에 대하여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즉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인성발달의 기초사항들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초통계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으며, 인성발달에 대한 일반특성에 따른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집단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이 연구는 태권도 수련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권도 수련을 받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성발달과 관련된 설문문을 통해 인성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은 태권도 수련을 받은 초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즉 성별, 연령, 수련시간, 수련기간, 수련수준에 따라 인성발달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인성발달에 대한 기초 통계량

인성발달에 대한 기초 통계량 중 정서안정의 평균은 3.73(\pm 0.74)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긍정적 생각의 평균이 3.77(\pm 0.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려운 일 처리 3.74(\pm 0.93), 다른 사람 이해 3.73(\pm 0.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평균은 3.83(\pm 0.77)으로 나타났고, 세부사항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의 평균이 3.87(\pm 0.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3.86(\pm 0.95),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3.84(\pm 0.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려성의 평균은 3.69(\pm 0.74)로 나타났고, 세부사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가도록 행동의 평균이 3.74(\pm 0.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누구에게나 친절이 3.73(\pm 0.92)으로 나타났다. 예절성의 평균은 4.00(\pm 0.75)으로 나타났고, 세부사항으로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의 평균이 4.18(\pm 0.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의 평균은 3.83(\pm 0.73)으로 나타났고, 세부사항으로 바른 행동의 평균이 3.93(\pm 0.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3.89(\pm 0.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인성발달에 대한 기초통계량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정서안정	주어진 일에 집중	3.72	0.89
	어려운 일 처리	3.74	0.93
	얌전하게 행동	3.69	0.92
	다른 사람 이해	3.73	0.93
	긍정적 생각	3.77	0.91
	평균	3.73	0.74
인성교육	바르게 살도록 노력	3.87	0.93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3.86	0.95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3.77	1.01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3.84	0.96
	자신에 대한 가치관	3.80	0.94
	평균	3.83	0.77
배려성	물건 정리정돈	3.67	0.91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3.74	0.91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3.62	0.97
	누구에게나 친절	3.73	0.92
	평균	3.69	0.74
예절성	바른 말씨 사용	3.90	0.99
	예의 바르게 행동	4.01	0.90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4.18	0.87
	몸가짐을 바르게	3.93	1.01
	평균	4.00	0.75
기본생활습관	규칙적인 생활	3.75	0.95
	식사습관	3.76	0.93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3.89	0.92
	준비성에 도움	3.82	0.90
	바른 행동	3.93	0.97
	평균	3.83	0.73

가. 성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의 경우 남자의 평균이 3.76(± 0.7)으로 여자의 평균3.61(± 3.6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어려운 일 처리는 남자의 평균이 3.79(± 0.92)로 여자의 평균3.51(± 0.95)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집중, 얌전하게 행동, 다른 사람 이해, 긍정적 생각 모두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경우 남자의 평균이 3.83(± 0.77)으로 여자의 평균3.81(± 0.8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은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여자의 평균이 남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성의 경우 남자의 평균이 3.69(± 0.75)로 여자의 평균3.68(± 0.7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물건 정리정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은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누구에게나 친절은 여자의 평균이 남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성의 경우 남자의 평균이 4.02(± 0.74)로 여자의 평균3.95(± 0.8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른 말씨 사용, 예의 바르게 행동,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는 남자

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몸가짐을 바르게는 여자의 평균이 남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남자의 평균이 3.86(±0.71)으로 여자의 평균 3.72(±0.8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식사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준비성에 도움, 바른 행동은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규칙적인 생활은 여자의 평균이 남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문항	남자	여자	t값	p값
주어진 일에 집중	3.75(0.85)	3.56(1.03)	1.701	0.090
어려운 일 처리	3.79(0.92)	3.51(0.95)	2.409	0.016
암전하게 행동	3.68(0.90)	3.69(1.00)	-0.076	0.940
다른 사람 이해	3.76(0.91)	3.64(1.02)	0.974	0.331
긍정적 생각	3.80(0.89)	3.65(0.97)	1.287	0.199
평균	3.76(0.70)	3.61(0.87)	1.560	0.120

<표 6> 성별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문항	남자	여자	t값	p값
바르게 살도록 노력	3.86(0.92)	3.88(0.94)	-0.147	0.883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3.88(0.95)	3.76(0.96)	0.994	0.321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3.78(1.03)	3.71(0.93)	0.575	0.566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3.83(0.96)	3.87(0.95)	-0.287	0.774
자신에 대한 가치관	3.80(0.91)	3.83(1.06)	-0.247	0.805
평균	3.83(0.77)	3.81(0.80)	0.227	0.820

<표 7> 성별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문항	남자	여자	t값	p값
물건 정리정돈	3.68(0.89)	3.64(0.97)	0.301	0.764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3.76(0.90)	3.69(0.94)	0.541	0.589
배려성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3.62(0.98)	3.63(0.90)	-0.064	0.949
누구에게나 친절	3.73(0.93)	3.76(0.85)	-0.297	0.767
평균	3.69(0.75)	3.68(0.74)	0.144	0.886

<표 8> 성별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문항	남자	여자	t값	p값
바른 말씨 사용	3.91(0.98)	3.83(1.03)	0.677	0.499
예의 바르게 행동	4.02(0.88)	3.95(1.00)	0.651	0.515
예절성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4.20(0.85)	4.09(0.96)	0.986	0.325
몸가짐을 바르게	3.93(1.01)	3.95(1.00)	-0.143	0.886
평균	4.02(0.74)	3.95(0.80)	0.654	0.514

<표 9> 성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문항	남자	여자	t값	p값
규칙적인 생활	3.75(0.94)	3.77(0.97)	-0.192	0.848
식사습관	3.79(0.92)	3.61(0.94)	1.521	0.129
기본 생활 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3.92(0.90)	3.76(1.00)	1.323	0.187
준비성에 도움	3.86(0.87)	3.64(1.00)	1.943	0.053
바른 행동	3.96(0.96)	3.80(1.00)	1.260	0.209
평균	3.86(0.71)	3.72(0.82)	1.477	0.141

나. 연령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연령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의 경우 13세의 평균이 $3.80(\pm 0.77)$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은 11세 이하의 평균이 $3.85(\pm 0.9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려운 일 처리, 안전하게 행동, 긍정적 생각은 13세의 평균, 다른 사람 이해는 11세 이하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경우 13세의 평균이 $3.98(\pm 0.7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1$)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13세의 평균,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은 11세 이하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배려성의 경우 11세 이하의 평균이 $3.75(\pm 0.7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물건 정리 정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는 11세 이하의 평균, 누구에게나 친절은 13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성의 경우 13세의 평균이 $4.09(\pm 0.8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른 말씨 사용은 11세 이하의 평균이 $3.99(\pm 0.9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는 11세 이하의 평균, 예의 바르게 행동, 몸가짐을 바르게는 13세의 평

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13세의 평균이 3.89(±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규칙적인 생활은 11세 이하의 평균이 3.88(±0.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사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은 13세의 평균, 준비성에 도움, 바른 행동은 11세 이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령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문항	11세 이하	12세	13세	F값	p값	
정서안정	주어진 일에 집중	3.85(0.92) ^a	3.53(0.78) ^b	3.74(0.92) ^a	4.858	0.008
	어려운 일 처리	3.78(0.91)	3.65(0.92)	3.79(0.98)	0.985	0.374
	안전하게 행동	3.72(0.91)	3.57(0.87)	3.79(0.98)	1.765	0.173
	다른 사람이해	3.82(0.97)	3.59(0.85)	3.78(0.94)	2.362	0.096
	긍정적 생각	3.80(0.92)	3.66(0.89)	3.88(0.92)	1.850	0.159
	평균	3.79(0.76) ^a	3.60(0.67) ^b	3.80(0.77) ^a	3.075	0.047

사후검정: a>b

<표 11> 연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문항	11세 이하	12세	13세	F값	p값	
인성교육	바르게 살도록 노력	3.99(0.96) ^a	3.60(0.90) ^b	4.02(0.84) ^a	8.518	0.000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3.92(0.97) ^a	3.63(0.95) ^b	4.05(0.87) ^a	6.404	0.002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3.92(0.96) ^a	3.48(1.05) ^b	3.90(0.97) ^a	8.324	0.000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3.94(0.99) ^a	3.61(0.94) ^b	3.97(0.90) ^a	5.862	0.003
	자신에 대한 가치관	3.87(0.99) ^a	3.62(0.86) ^b	3.93(0.94) ^a	4.108	0.017
	평균	3.93(0.80) ^a	3.59(0.74) ^b	3.98(0.71) ^a	10.039	0.000

사후검정: a>b

<표 12> 연령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문항	11세 이하	12세	13세	F값	p값
물건 정리정돈	3.75(0.88)	3.62(0.86)	3.60(1.00)	1.182	0.308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3.80(0.92)	3.67(0.88)	3.75(0.92)	0.800	0.450
배려성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3.74(1.00)	3.50(0.95)	3.60(0.92)	2.373	0.095
누구에게나 친절	3.72(0.94)	3.63(0.87)	3.88(0.93)	2.277	0.104
평균	3.75(0.74)	3.61(0.70)	3.71(0.79)	1.465	0.232

<표 13>연령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문항	11세 이하	12세	13세	F값	p값
바른 말씨 사용	3.99(0.91) ^a	3.72(0.97) ^b	3.97(1.09) ^a	3.174	0.043
예의 바르게 행동	4.04(0.93)	3.91(0.84)	4.09(0.93)	1.278	0.280
예절성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4.21(0.87)	4.14(0.81)	4.20(0.94)	0.294	0.745
몸가짐을 바르게	3.91(0.99)	3.83(0.97)	4.10(1.07)	2.074	0.127
평균	4.04(0.73)	3.90(0.69)	4.09(0.84)	2.088	0.125

사후검정: a>b

<표 14> 연령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문항	11세 이하	12세	13세	F값	p값
규칙적인 생활	3.88(0.97) ^a	3.58(0.91) ^b	3.79(0.92) ^a	3.789	0.023
식사습관	3.77(0.93)	3.67(0.89)	3.87(0.97)	1.317	0.269
기본 생활 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3.87(0.95)	3.83(0.85)	3.97(0.95)	0.670	0.512
준비성에 도움	3.87(0.91)	3.77(0.89)	3.81(0.89)	0.523	0.593
바른 행동	4.03(0.93) ^a	3.74(0.98) ^b	4.01(0.97) ^a	3.929	0.020
평균	3.88(0.75)	3.72(0.67)	3.89(0.77)	2.373	0.095

사후검정: a>b

다. 수련시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수련시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의 경우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4.16(± 0.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은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4.41(± 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려운 일 처리는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4.21(± 0.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얌전하게 행동, 다른 사람 이해, 긍정적 생각은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경우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4.38(± 0.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1$)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은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성의 경우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4.28(±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1$)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물건 정리정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누구에게나 친절은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p < 0.01$)으로 나타났다.

예절성의 경우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4.36(± 0.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른 말씨 사용, 예의 바르게 행동,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는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몸가짐을 바르게는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4.10(± 0.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규칙적인 생활,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은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사습관, 준비성에 도움은 1시간미만의 평균, 바른 행동은 1시간30분 이상~2시간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수련시간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문항	1시간미만	1시간이상~ 1시간30분	1시간30분 이상 ~2시간미만	F값	p값
주어진 일에 집중	3.79(0.98) ^b	3.65(0.84) ^c	4.41(0.95) ^a	10.626	0.000
어려운 일 처리	3.71(0.97) ^b	3.70(0.92) ^b	4.21(0.94) ^a	3.982	0.019
정서 안정	3.52(1.02) ^b	3.68(0.90) ^c	4.03(0.91) ^a	2.781	0.063
다른 사람	3.71(1.04) ^b	3.70(0.91) ^b	4.10(0.94) ^a	2.486	0.085
긍정적 생각	3.86(1.05) ^b	3.74(0.89) ^c	4.03(0.91) ^a	1.591	0.205
평균	3.72(0.81) ^b	3.69(0.72) ^b	4.16(0.74) ^a	5.412	0.005

사후검정: $a > b > c$

<표 16> 수련시간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문항	1시간미만	1시간이상~ 1시간30분	1시간30분 이상~ 2시간미만	F값	p값	
바르게 살도록 노력	3.74(1.23) ^b	3.82(0.88) ^b	4.59(0.63) ^a	10.049	0.000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3.76(1.12) ^b	3.82(0.92) ^b	4.45(0.78) ^a	6.256	0.002	
인성 교육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3.74(1.19)	3.74(0.99)	4.14(0.88)	2.118	0.122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3.67(1.32) ^b	3.81(0.89) ^c	4.41(0.98) ^a	6.187	0.002
	자신에 대한 가치관	3.57(1.15) ^b	3.79(0.91) ^c	4.31(0.76) ^a	5.669	0.004
	평균	3.70(1.03) ^b	3.79(0.73) ^b	4.38(0.61) ^a	8.591	0.000

사후검정: a>b>c

<표 17> 수련시간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문항	1시간미만	1시간이상~ 1시간30분	1시간30분 이상~ ~2시간미만	F값	p값	
물건 정리정돈	3.74(1.11) ^b	3.60(0.86) ^c	4.28(0.88) ^a	7.687	0.001	
배 려 성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3.67(1.03) ^b	3.69(0.87) ^b	4.52(0.78) ^a	12.045	0.000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3.74(1.21) ^b	3.56(0.93) ^c	4.10(0.82) ^a	4.626	0.010
	누구에게나 친절	3.64(1.10) ^b	3.70(0.90) ^b	4.24(0.69) ^a	4.997	0.007
	평균	3.70(0.92) ^b	3.64(0.71) ^b	4.28(0.57) ^a	10.586	0.000

사후검정: a>b>c

<표 18> 수련시간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문항	1시간미만	1시간이상 ~1시간30 분	1시간30분 이상 ~2시간미만	F값	p값	
바른 말씨 사용	3.76(1.23)	3.88(0.96)	4.31(0.81)	3.030	0.049	
예 절 성	예의 바르게 행동	3.79(1.02) ^c	4.00(0.89) ^b	4.45(0.74) ^a	4.872	0.008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4.21(0.92) ^b	4.14(0.87) ^b	4.59(0.68) ^a	3.563	0.029
	몸가짐을 바르게	3.67(1.20)	3.95(0.98)	4.01(1.01)	1.945	0.144
	평균	3.86(0.91) ^b	3.99(0.73) ^b	4.36(0.63) ^a	4.207	0.016

사후검정: a>b>c

<표 19> 수련시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문항	1시간미만	1시간이상	1시간30분	F값	p값	
		~ 1시간30분	이상~ 2시간미만			
규칙적인 생활	3.79(1.12) ^b	3.71(0.91) ^b	4.24(1.02) ^a	4.341	0.014	
식사습관	4.00(0.91)	3.71(0.91)	3.93(1.10)	2.337	0.098	
기본 생활 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3.95(0.94) ^b	3.84(0.90) ^c	4.31(1.04) ^a	3.675	0.026
	준비성에 도움	3.90(0.88)	3.81(0.89)	3.86(0.99)	0.261	0.770
	바른 행동	3.93(1.00)	3.90(0.94)	4.17(1.17)	1.022	0.361
	평균	3.91(0.69)	3.79(0.71)	4.10(0.93)	2.727	0.067

사후검정: a>b>c

라.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의 경우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3.81(±0.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 암전하게 행동, 다른 사람 이해는 4년~5년 미만, 어려운 일 처리, 긍정적 생각은 3년~4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경우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3.88(±0.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은 1년~2년 미만,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은 3년~4년 미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성의 경우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3.82(\pm 0.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물건정리정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는 4년~5년 미만, 누구에게나 친절은 1년~2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성의 경우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4.15(\pm 0.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는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4.37(\pm 0.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른 말씨 사용, 예의바르게 행동, 몸가짐을 바르게는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4년~5년 미만의 평균이 3.94(\pm 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규칙적인 생활, 바른 행동은 4년~5년 미만, 식사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은 3년~4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비성에 도움은 1년~2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수련기간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문항	1년~	2년~	3년~	4년~	F값	p값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정서 안정	주어진 일에 집중	3.74(0.85)	3.59(0.88)	3.72(0.88)	3.81(0.94)	1.035	0.377
	어려운 일 처리	3.67(0.91)	3.57(0.80)	3.89(0.99)	3.83(1.00)	2.400	0.067
	얌전하게 행동	3.71(0.83)	3.60(0.86)	3.67(0.97)	3.76(1.01)	0.529	0.663
	다른 사람	3.68(0.84)	3.63(0.89)	3.80(1.00)	3.83(0.99)	0.982	0.401
	긍정적 생각	3.69(0.80)	3.66(0.91)	3.94(0.92)	3.82(0.98)	1.842	0.139
	평균	3.70(0.63)	3.61(0.69)	3.80(0.79)	3.81(0.82)	1.580	0.194

<표 21>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문항	1년~	2년~	3년~	4년~	F값	p값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인성 교육	바르게 살도록 노력	3.96(0.86)	3.73(0.95)	3.84(1.02)	3.92(0.87)	1.160	0.325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3.89(0.90)	3.72(0.92)	3.97(1.10)	3.86(0.89)	1.096	0.351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3.82(0.93)	3.67(0.88)	3.80(1.18)	3.78(1.04)	0.399	0.754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3.80(0.92)	3.81(0.88)	3.78(1.21)	3.95(0.82)	0.668	0.572
	자신에 대한 가치관	3.77(0.91)	3.67(0.87)	3.86(1.03)	3.90(0.95)	1.175	0.319
	평균	3.85(0.71)	3.72(0.72)	3.85(0.93)	3.88(0.74)	0.823	0.482

<표 22> 수련기간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문항	1년~	2년~	3년~	4년~	F값	p값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배려 성	물건 정리정돈	3.66(0.87)	3.63(0.79)	3.53(1.00)	3.84(0.95)	2.019	0.111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3.79(0.90)	3.66(0.75)	3.63(1.08)	3.88(0.87)	1.531	0.206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3.69(0.87)	3.54(0.91)	3.47(1.11)	3.76(0.95)	1.850	0.137
	누구에게나 친절	3.81(0.91)	3.71(0.72)	3.59(1.11)	3.80(0.91)	1.163	0.324
	평균	3.74(0.68)	3.64(0.57)	3.56(0.92)	3.82(0.74)	2.340	0.073

<표 23> 수련기간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문항	1년~	2년~	3년~	4년~	F값	p값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바른말씨 사용	3.89(0.93)	3.89(0.95)	3.86(1.11)	3.94(0.97)	0.119	0.949
예의바르게 행동	3.99(0.89)	3.86(0.89)	4.01(0.99)	4.16(0.81)	1.981	0.116
예절성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4.08(0.87) ^b	4.01(0.83) ^b	4.27(0.95) ^a	4.37(0.79) ^a	3.670	0.012
몸가짐을 바르게	3.84(1.00)	3.85(1.00)	3.88(1.13)	4.14(0.87)	2.149	0.094
평균	3.95(0.69)	3.90(0.70)	4.01(0.91)	4.15(0.68)	2.190	0.089

사후검정: a>b

<표 24> 수련기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문항	1년~	2년~	3년~	4년~	F값	p값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규칙적인 생활	3.83(0.91) ^a	3.53(0.88) ^c	3.75(1.05) ^b	3.89(0.92) ^a	2.833	0.038
식사습관	3.84(0.88) ^a	3.40(0.93) ^b	3.90(0.81) ^a	3.89(0.98) ^a	7.013	0.000
기본 생활 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3.90(0.90) ^a	3.63(0.92) ^b	4.01(0.83) ^a	4.00(0.97) ^a	3.678	0.012
준비성에 도움	3.91(0.82) ^a	3.62(0.95) ^b	3.90(0.86) ^a	3.85(0.93) ^a	2.243	0.083
바른 행동	4.03(0.97) ^a	3.70(0.93) ^c	3.89(1.03) ^b	4.07(0.92) ^a	2.922	0.034
평균	3.90(0.67) ^a	3.58(0.73) ^b	3.89(0.70) ^a	3.94(0.77) ^a	5.410	0.001

사후검정: a>b>c

마. 수련수준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수련수준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의 경우 3품의 평균이 3.87(± 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 어려운 일 처리, 얌전하게 행동, 다른 사람 이해, 긍정적 생각은 3품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경우 3품의 평균이 3.94(± 0.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 바르게 생각하기 판단,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3품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성의 경우 3품의 평균이 3.84(± 0.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물건 정리정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가는 행동,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누구에게나 친절은 3품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성의 경우 3품의 평균이 4.25(± 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몸가짐을 바르게는 3품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른말을 사용, 예의 바르게 행동은 3품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3품의 평균이 3.90(± 0.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규칙적인

생활, 식사습관, 바른 행동은 3품,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은 2품, 준비성에 도움은 1품과 3품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사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수련수준에 따른 정서안정의 차이

문항	1품	2품	3품	F값	p값	
정서안정	주어진 일에 집중	3.70(0.87)	3.68(0.89)	3.86(0.91)	0.963	0.382
	어려운 일 처리	3.63(0.92)	3.77(0.93)	3.89(0.97)	1.862	0.157
	암전하게 행동	3.65(0.87)	3.63(0.91)	3.94(1.01)	2.820	0.061
	다른 사람	3.63(0.91)	3.77(0.93)	3.84(0.95)	1.466	0.232
	긍정적 생각	3.69(0.85)	3.81(0.95)	3.84(0.90)	0.940	0.392
	평균	3.66(0.70)	3.73(0.74)	3.87(0.80)	1.813	0.165

<표 26> 수련수준에 따른 인성교육의 차이

문항	1품	2품	3품	F값	p값	
인성교육	바르게 살도록 노력	3.92(0.91)	3.79(0.97)	3.98(0.79)	1.428	0.241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3.85(0.92)	3.84(0.99)	3.95(0.89)	0.372	0.689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	3.80(0.92)	3.73(1.07)	3.81(1.01)	0.256	0.774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3.76(0.95)	3.85(1.02)	3.95(0.77)	0.859	0.424
	자신에 대한 가치관	3.69(0.90)	3.82(0.99)	4.00(0.84)	2.414	0.091
	평균	3.80(0.73)	3.80(0.83)	3.94(0.67)	0.801	0.449

<표 27> 수련수준에 따른 배려성의 차이

문항	1품	2품	3품	F값	p값	
배려성	물건 정리정돈	3.63(0.97)	3.66(0.86)	3.79(0.92)	0.761	0.468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3.72(0.93)	3.72(0.91)	3.87(0.85)	0.757	0.470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3.63(0.91)	3.56(1.02)	3.78(0.89)	1.217	0.297
	누구에게나 친절	3.69(0.91)	3.71(0.95)	3.90(0.82)	1.355	0.259
	평균	3.67(0.74)	3.66(0.75)	3.84(0.71)	1.455	0.235

<표 28> 수련수준에 따른 예절성의 차이

문항	1품	2품	3품	F값	p값
바른 말씨 사용	3.82(0.96)	3.87(1.03)	4.14(0.88)	2.421	0.090
예의바르게 행동	3.93(0.93)	4.01(0.90)	4.14(0.82)	1.191	0.305
예절성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4.02(0.90) ^c	4.20(0.85) ^b	4.46(0.78) ^a	5.605	0.004
몸가짐을 바르게	3.76(1.04) ^c	3.94(1.00) ^b	4.27(0.88) ^a	5.697	0.004
평균	3.88(0.73) ^c	4.00(0.76) ^b	4.25(0.70) ^a	5.281	0.005

사후검정: a>b>c

<표 29> 수련수준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문항	1품	2품	3품	F값	p값
규칙적인 생활	3.78(0.93)	3.68(0.97)	3.94(0.90)	1.810	0.165
식사습관	3.76(0.89)	3.73(0.95)	3.86(0.95)	0.443	0.643
기본 생활 습관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3.79(0.86)	3.96(0.96)	3.86(0.91)	1.264	0.284
준비성에 도움	3.83(0.85)	3.81(0.92)	3.83(0.91)	0.023	0.977
바른 행동	3.93(0.93)	3.90(1.00)	4.00(0.95)	0.255	0.775
평균	3.82(0.68)	3.82(0.76)	3.90(0.76)	0.304	0.738

V. 논의

이 연구는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권도 수련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성발달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인성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은 태권도 수련을 받은 초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즉 성별, 연령, 수련시간, 수련기간, 수련수준에 따라 인성발달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인성발달은 정서안정, 인성교육, 배려성, 예절성, 기본생활습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에 대해 성별의 차이가 없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안정에서는 “어려운 일 처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인성교육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세부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서 인성교육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배려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세부사항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예절성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기본생활 습관 또한 유의한 성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진중의(1998), 장승수(2008) 등의 연구에서도 태권도 수련생의 성별에 따라 인성발달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규형, 송형석(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인성발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다. 송종국(2005)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예의범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발달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성발달은 성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며 인성발달에 대한 연구 시 성별 보다 다른 배경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3세에서 가장 높은 정서안정의 평균값을 보였다. 세부사항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에서 연령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1세 이하 초등학생들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인성교육에서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13세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사항에서도 모두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성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예절성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바른말씨 사용”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본생활습관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식(2007)의 연구에서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들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에 따라 인성발달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안정에서는 12~13세에서 가장 높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생활태도에서는 10~11세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승수(2008)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규형, 송형석(2002)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인성발달의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성발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이 인성 발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나이를

먹을수록 인성발달이 잘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나이일수록 인성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련시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의 경우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세부사항으로 “주어진 일”, “어려운 일 처리”에서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경우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세부사항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자신에 대한 가치관”에서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배려성의 경우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세부사항으로 “물건 정리정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누구에게나 친절”에서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절성의 경우에도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세부사항으로 “바른말씨 사용”, “예의 바르게 행동”,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에서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규칙적인 생활”,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에서는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수(2008)의 연구에서는 예절성과 기본생활습관에서 수련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련기간이 길수록 인성발달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철환, 전정우(2008)의 연구에서는 수련시간에 따라

정서적 안정과 생활태도에서 인성발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수련시간이 길수록 인성발달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태권도 수련은 심신의 수련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 심신의 수련을 통해 인성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성이 발달되지 못한 어린학생들에게 태권도 등의 운동을 병행해 인성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생활 전반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 인성교육, 배려성에서는 수련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성은 수련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는 수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4년~5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수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4년~5년 미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규칙적인 생활, 바른 행동에서 수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김용길(1998)의 연구에서는 수련기간에 따라 태권도수련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분석결과 수련기간과 인성발달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수(2008)의 연구에서도 수련기간과 인성발달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하지만 양철환, 전정우(2008)의 연구에서는 수련기간에 따라 인성발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년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랜기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할수록 인성의 발달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태권도의 특성상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운동도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태권도가 완성이 됨으로 태권도는 오랜 기간을 통해 인성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수련수준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 인성교육, 배려성,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수련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예절성의 경우 수련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3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특히“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몸가짐을 바르게”에서 수련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품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전익기 등(2005)의 연구에서는 1품에서 인성발달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수련수준은 수련시간이나 수련기간과 관계가 높아 장기간의 수련을 통해 수련수준도 높아진다. 따라서 수련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인성발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간의 태권도 수련이 인성발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태권도 수련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태권도 수련을 받은 초등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2010년 10월까지 인성발달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인성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에 따른 결론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에서는 “어려운 일 처리” “긍정적 생각”에서 남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세부사항에서는 평균값이 남자가 모두 조금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인성발달은 성별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성발달에 대한 연구 시 성별 보다 다른 배경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안정의 경우 13세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에서 11세 이하 초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인성교육, 배려성, 예절성, 기본생활습관에서도 13세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성발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

한다.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인 경우 인지하는 능력이 연령이 높은 아이에 비해 떨어지므로 인성 발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나이를 먹을수록 인성발달이 잘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나이일수록 인성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련시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의 경우 수련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어진 일”, “어려운 일 처리”에서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경우 “바르게 살도록 노력”,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자신에 대한 가치관”에서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배려성의 경우 “물건 정리정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행동”,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누구에게나 친절”에서 1시간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예절성의 경우에도 “바른 말씨 사용”, “예의 바르게 행동”,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에서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들의 태권도 수련은 심신의 수련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 심신의 수련을 통해 인성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성이 발달되지 못한 어린학생들에게 태권도 등의 운동을 병행해 인성발달에 도움을 주고 사회성을 키워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생활 전반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바른 행동에서 4년~5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랜기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할수록 인성의 발달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깨끗하게 생활하고 위생에 신경, 바른 행동에서 차이가 많았다. 태권도의 특성상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운동도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태권도가 완성이 됨으로 태권도는 오랜 기간을 통해 인성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수련수준에 따라 예절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히”, “몸가짐을 바르게”에서 3품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수련수준은 수련시간이나 수련기간과 관계가 높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기간의 수련을 통해 수련수준도 높아진다. 따라서 수련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인성발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장기간의 태권도 수련을 했을 경우 인성발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이 연구는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며,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인성교육에 관한 과제 설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을 부산지역으로 제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편차를 벗어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태권도 수련생의 생활태도 및 인성에 관하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련생의 수련 전 설문과 비 수련생을 비교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한 이론적 근거와 자료의 축적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성발달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선행연구 자료가 많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관련 지도자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래형(2006). 태권도 수련에 따른 중학생 인성발달 차이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한경(1996). 태권도 수련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 권미정(2008). 배려윤리를 통한 도덕과 교육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경지(1998). 태권도 학개론. 서울: 경운출판사.
- 김낙현(2005). 태권도 수련기간에 따른 성격 변화 연구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 김득중(1997). 실천예절계론. 서울: 교문사.
- 김상규(2005).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체육과학대학원.
- 김석련(1990). 어린이 태권도 교육이 IQ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29권 2호.
- 김석련(1992). 태권도 교육에 있어 심호흡을 통한 느린 동작의 수련이 정신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31권 2호.
- 김석련(1993). 제31회 하계 학술발표회 발표 논문. 한국체육학회. 조선대학교.
- 김석련(1997). 어린이 태권도 교육이 기초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체육연세대 체육연구소 연구논문집. 4, 1(97,12) pp. 1-15.
- 김성록(2006).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이 정서발달 및 학교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영곤(2005). 태권도 수련이 성장기 아동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 김용길, 박준석 (1998). 태권도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 Vol.7, No.2, pp. 219-227.
- 김정원(2008).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예절교육 내용의 동향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해(2007).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생활태도가 인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스포츠경영학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 철(1986). 태권도 교육론. 이리; 원광대학교 출판국.
- 대구광역시 교육청(1991). 기본생활습관지도. 청주: 닐바다 출판사.
- 대한태권도협회(1981). 태권도교본-(품새)편. 서울: 범학사.
- 동지한(2007). 태권도 수련 초등학생들의 정서·사회성 및 생활태도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대학원.
- 박병춘(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도서출판 울력.
- 박상민(1999).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정신 교육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박중길, 김승재, 문창일, 문익수(2004). 체육교사의 인성교육인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 박춘자(1989).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찬옥·정남미·임경애(1994). 유아놀이지도. 서울: 학문사.
- 박형식(2005).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특성과 지도자 이미지 및 인성발달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88). 한국 교육사. 경기: 교육과학사.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1997).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자료: 조화로운 인간 교육**. 서울: 경인출판사.
- 성균관 예절총서(1996). **생활예절**. 서울: 성균관 출판부.
- 성삼철, 김원중, 이명철, 조장원(1989). **대한 정형외과 학회지**. 제24권 6호.
- 손성남(1996). **21세기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철학적 구상**. 서울: 한독교육학연구.
- 손하중(1998).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승복(2008). **초등학생들의 태권도수련이 학습태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송세정(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종국(2005).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희충(1995).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자와 비 수련자의 성격차이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송형식(2001). **스포츠와 인간**. 서울: 이문출판사.
- 양철환, 전정우(2008). **태권도 교육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부설 스포츠과학연구원, pp. 13-24.
- 윤상화, 김갑수(2000)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 활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PP. 191-210
- 이경식(2009). **태권도 지도자가 인식하는 인성과 교육에 대한 요인 추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 태권도대학원.
- 이규형, 송형식(2002). **태권도 수련 정도와 인성발달의 관계 -서울지역 남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8, No.1, pp. 135-146.

- 이규형(2002). **초등학교 아동의 태권도 수련과 인성발달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대영(2003).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의 생활태도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이 봉(1992). **한국 태권도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용(2008). **생활체육으로써 태권도의 발전방향**.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2007).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의 정서발달 및 사회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스포츠경영학과.
- 이정덕(1980). **아동학**. 경기: 수문사.
- 이천인(1998). **태권도장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한주(2005).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 이희정(2006). **배려윤리를 통한 초등환경윤리교육의 개선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호중(2001). **인성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교원대학교 대학원.
- 장동환, 김영채, 손정락(1991). **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 장승수(2008).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 전익기, 양결, 조성균(2005). **성장기 아동의 인성발달을 위한 태권도 수련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Vol.16, No.6, pp. 501-508.

- 정재결(1996).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에 대한 토론**.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초등교육학회 대학원.
- 정재순(1997).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토의 교수전략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찬모(1976). **태권도 문교부 교육 자료총서. 40**. 서울: 서울신문사 출판국.
- 조난심(1997). **한국 교육의 신세기적 구상**.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 진중의(1998). **태권도 수련생들의 성별에 따른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Martial Arts*, Vol.9, No.1, pp. 171-179.
- 태권마루(2010). <http://www.teakwonmaru.com./2510895>, 2010.
- 한동순(2008). **태권도 지도자가 초등학교 수련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허정식(2007).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들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Vol.18, No.6, pp. 811-820.
- 현해정(1994). **유아의 바른생활습관 형성지도**. 유아교육자료 9월호.
- 홍준희(2001). **스포츠 상황에서 자기조절 초점과 목표추구 행동 간의 관계**.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Allport, G, W(1967). *Pattern and growth personality*. New york : Holt, Rinehalt and Winston.
- Mayerorr, M., Cn Caring, N. Y : Harper & Row, 1971.
- Oatley, K., J.M(1996). *Understanding emotions*. BlackWell Publishers.

A STUDY ON PERSONALITY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THROUGH TAEKWONDO TRAININ

Jin Sam Y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of 395 taekwondo students, from Sep.2009 to Oct.2010, to verify the positive effect of taekwondo on the personality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ersonality development, the emotional stability of boys appears higher on average than girls in the specific categories of ‘dealing with difficulty’ and ‘positive view.’ Girls and boys present little difference in terms of personality and education, as proven by existing theories.

The mean value of boys in specifics appears slightly higher, but this is not a large gap considering the results from a statistic perspective. It suggests that personality development is not largely influenced by sexual differences. Consequently, studies of other background factors should be carried out together to achieve a more accurate result.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ge and personality

development, the 13 year old student group shows the highest mean value in the 'emotional stability' category. They present the highest average in 'personality education,'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and 'basic life habit' as well. Meanwhile, 'Concentration on given tasks' was achieved most highly by students below 11 years old.

As other research already proved, older students show higher accomplishment in terms of personality development. The perception of young students usually lags behind that of older ones, implying more time for them to develop personality. Personality development can be induced more effectively among older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research into environmental factors and educational programs affecting that of younger students.

Third, with respect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time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t appears out that level of emotional stability depends on training time. It peaks at 1h 30 to 2h in the 'dealing with given tasks' and 'solving difficult problems' Areas. The same goes for 'trying to live right', 'ethical thinking and judgment',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others', and 'self-confidence' in the personality education category; 'cleaning and arranging', 'no rude behavior', 'thoughtful speaking and acting', and 'being kind without discrimination', in the consideration category; and 'using the right words 'acting politely', and 'greeting with courtesy' in the courtesy category.

The purpose for elementary students practicing taekwondo is to strengthe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s existing theories insist,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training mind and body develops personality. It implies that physical exercise such as taekwondo can boost personality development, sociability and the general social activities of young students

with less well-developed characters.

Fourth, with respect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perio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asic life habits become fixed between 4~5 years, backed up specifically by 'caring cleanliness and hygiene,' and 'behaving right.' Considering the nature of taekwondo's requirement of a long period of time to master, it requires some time for a positive personality to be formed through its study. Of course, the period of time is influenced by individual differences as well.

Finally, courtesy differs according to training levels. A group of three Poom students had the highest average values in 'greeting with courtesy' and 'remembering manners.'

Owing to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raining level and time, high levels can be improved through extended practice periods. Low training levels can certainly affect personality development, but constant practice is much more effective for personality development.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하는
용진 삼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태권도 수련을 통한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활용될 것이며, 각 문항에 정답은 없으며, 익
명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된 응답요령을 주의해서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
하게 답하여 주시고, 혹시 질문사항이 어렵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
시면, 조사원에게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입니
다.

이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2010년 3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연구자 : 용진삼

1. 다음은 태권도 수련 후 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안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려운 일도 침착하게 잘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차분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태권도 수련 후 학생이 느끼는 “인성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태권도 수련 후 학생이 느끼는 “배려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 정리하여 놓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말 한마디라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구에게나 친절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태권도 수련 후 학생이 느끼는 “예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바른 말씨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의를 잘 알고 예의를 바르게 행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사를 공손하고 정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몸가짐이 바르다는 소리를 듣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5. 당신의 주당 도장 참여 횟수 ?

- ① 1회 이하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6-6. 당신의 수련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6-7. 당신의 태권도 수련수준은?

- ① 1~2 등급 ② 3~4 등급 ③ 5~6 등급 ④ 7~8등급
⑤ 1품 ⑥ 2품 ⑦ 3품 ⑧ 4품 이상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